

저병원성 AI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KBNP 제품 3종

금년 겨울
저병원성
AI를 비롯하여
QX형 IB, 뉴모



과 결합하여 닭의
활력을 촉진시킨
다. 특히 질병을
앓아 활력이 저하

등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양계농가들의 고민거리가 크다. 이러한 질병에 감염될 경우 종계/산란계는 사료섭취량과 산란율이 저하되며, 회복 기간에도 약 3~4주간이 소요된다. 육계는 폐사와 증체 저하가 발생한다. 이 질병은 바이러스성으로 이미 발병한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나,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(주)고려비엔피(대표 민정훈)의 KBNP 제품을 소개 한다.

된 닭의 사료섭취량, 체중 회복에 도움을 준다.

① 비고진-S(대사촉진제)

‘비고진’은 20년 이상 많은 양계농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액상 대사촉진제이다. 카르니틴, 허브오일 등이 최적포몰러로 배합되어 있어 닭 체내의 사용되지 못한 지방산

② 에그업(고농도 메티오닌 함유 영양제)

‘에그업’은 생산성 향상에 가장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20% 고농도로 함유한 사료첨가용 영양제이다. 질병으로 인한 난중/체중의 저하 이후, 회복 과정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고농도로 포함한 에그업은 회복 기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.

③ 카스피린-C(해열제)

‘카스피린-C’는 닭, 돼지, 송아지의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는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으로 질병 발생 시 동반되는 발열, 진통,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. **양계**